



'아무리 얘기해도'의 한 장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의 모습과 북한군의 모습이 같다고 왜곡하는 장면. 만화 속 남성은 자신이 주인공에게 보여준 사진이 북한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증거라고 왜곡하며, 시민군을 '광수'라고 부르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왜곡과 진실 담아...만화로 만나는 5·18

만화가 4명 참여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 4권 출간
5·18 부문 마영신 작가 '아무리 얘기해도'...가짜뉴스 등 비판

끊이지 않고 있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를 지적하며 1980년 5월의 상황을 그린 만화책이 출간된다. 만화가 마영신 작가는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 가운데 5·18민주화 운동을 그린 '아무리 얘기해도'를 7일 출간한다. 마 작가는 1980년과 2020년을 오가며, 당시 광주의 잔혹한 진실과 현재의 냉혹한 무관심을 대비시킨다. 만화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시작한다. 학교 앞 담꼬지를 판매하는 남성이 고등학생인 주인공에게 "빨갱이 놈들, 5·18 폭동 40주년이라고 또 사람들 선동하겠네"

라는 말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게 5·18당시에 북한군들이 한국에 내려왔다는 증거야. 이걸 광수 사진이라고 하는데..."라고 왜곡한다. 남성의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진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광수사진'의 진위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이를 들던 선생님이 나타나 당시의 "너희 일베하냐?"라는 말과 함께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해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책은 1980년 전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나간다. 만화는 시내버스 탑승객을 모조리 끌어

내 구터하고, 계엄군을 피해 달아나던 대학생들을 숨겨준 노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그려졌다. 또 태어난지 100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두고 구두담이에 나선 장애인 남성을 말로 하지 못한다며 계엄군이 진압봉으로 때리는 장면, 아낙네들이 주먹밥을 만들어 트럭에 탄 시민군에게 나눠주는 모습 등 1980년 5월의 모습이 고스란히 실려있다. 또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문 제정, 학살을 둘러싼 진실 등 선생님은 주인공과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 하지만 만화 속에서 주인공은 선생님의 설명에도 하품을 하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는 5·18민주화운동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5·18을 왜곡, 폄

하하려는 세력과 이들이 퍼뜨리고 있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한다. 또 5·18 왜곡 세력에 대한 비판과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한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는 총 4권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네 장면을 4명의 작가가 각각 그려냈다. 제2 4·3사건을 다룬 김홍모의 '빛장', 4·19혁명을 그려낸 윤태호의 '사일구', 마영신 작가의 '아무리 얘기해도', 6·10민주화 운동을 그려낸 유승하의 '1987 그날'로 구성됐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출판 기념 온라인 기자회견담회는 7일 오전 11시 유튜브 '창비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온라인 개학 효자 노릇 톡톡

교원 공동 연구 수업 나눔
올 2189개팀 구성 활동
원격 수업 준비·지원 주도

전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맞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생의 배움과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교원이 함께 연구·실천하며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올해 2189개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1816개팀보다 373개팀(20.5%)이 늘어난 것으로, 더불어 함께 배우고 나누는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전남 교사들의 열정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배움중심수업

실현 ▲동료 교사와 동반성장 ▲공감과 소통의 학교문화 조성 ▲집단역량 발휘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실현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도교육청의 역점시책 사업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배움중심수업 실현을 목표로 공동연구·공동실천·협력배움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성장·나눔이 이루어지는 학교 내 협력적 수업나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의 휴업과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원격수업 국면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 안산중은 지난 3월 31일 온라인 개학 방침이 발표되자 '여수 안산중 온라인 수업 연구' 밴드를 개설해 비타민, 성장통, 특목 안산, 체육과

과정중심평가연구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가동했다. 이들 4개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서로 학생 및 교사가 돼 수업 시연을 하면서 온라인플랫폼 1종씩 활용법을 익히고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1종의 온라인플랫폼을 선정해 지난 3일부터 각 교과별 담당교사가 자료를 구축하고, 7일까지 모든 학생을 초대해 원격수업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9일 중3의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고 있다. 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교사가 정 보부장인 학교도 전 교원이 위두랑, 구글클래스룸, 온라인클래스 등을 자체 연 수하면서 온라인개학에 대비해 민간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ZOOM' (원격수업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과 온라인 조회 등을 사전 시연한 학교도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2일 토익시험도 취소
2월 이후 4번째...26일 진행

오는 12일 예정됐던 토익(TOEIC) 정기 시험이 다시 취소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시험 취소는 이번이 네 번째다. 한국도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지속되고 4월 6일로 예정돼 있었던 등교개학일이 또 다시 연기돼 학교시설을 시험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시행 취소 이유를 밝혔다. 한국도교육위원회는 12일 시험 접수자에게는 이후 시험에 접수할 수 있는 응시권을 발급하거나 응시료 전액을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대신 오는 26일 예정된 토익시험은 방역 하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익 시험은 앞서 국내 신천지 대구교회 '슈퍼감염' 이 일어난 이후인 지난 2월29일과 지난달 15일·29일 등 총 세 차례 취소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1 달뜨기 18:00
해질 18:59 달질 05:49

한낮 기온 포근

대체로 맑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광주	맑음	5/20	보성	맑음	1/19
목포	맑음	5/15	순천	맑음	6/22
여수	맑음	8/20	영광	맑음	2/17
나주	맑음	2/19	진도	맑음	4/17
완도	맑음	6/19	전주	맑음	4/20
구례	맑음	2/22	군산	맑음	5/16
강진	맑음	3/19	남원	맑음	1/20
해남	맑음	1/18	흑산도	맑음	7/16
장성	맑음	1/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안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0.5	
	면바다(북)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남)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서부	안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1.0	
	면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동)	서~북서 0.5~1.0	서~북서 0.5~1.5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45 19:12	01:19 13:50
여수	간조	만조
	02:20 14:43	08:43 21:03

◇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	☀	☀	☀	☁	☀	☀
5/17	4/17	6/17	5/17	6/19	6/18	6/21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보통

광주 북구, 보험료 전액 부담 '구민 생활안전보험' 시행

광주시 북구는 구민 전부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시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광주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생활안전보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보험 대상자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으로 전입과 전출 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탈퇴 처리된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물놀이사고 ▲가스사고 ▲온열질환 진단금 ▲화상수술비 등 5개이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최대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금은 10만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50만원 한도이다. 보장 기간은 2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로 1년이며, 다른 보험에 가입될더라도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구청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hb@

광주교육청 'Wee프로젝트 공모전' 대상 2편 등 수상

광주시교육청이 제9회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 2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2편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 맞고 있다. 학생과 상담업무 담당자 부문에서는 전남대사범대학부설교 학생과 돈보스코

학교 노지원 상담교사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또 고려고 학생과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김문희 전문상담교사가 각각 최우수상, 광주경신여고 학생과 동부Wee센터 서미정 전문상담교사가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관 부문에서는 광주동부Wee센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